

“마쓰다 도키코는 식민지 조선인과 교류로 시집이 발매금지된 일본 유일한 여류시인”

日마쓰다 도키코 연구자 김정훈 전남과학대 교수 발굴

남편은 천황암살 기도혐의 ‘대역사건’ 사형수 동생이 소개



발매금지처분 당한 ‘참을성 강한 자에게’ 초판본.



일본 연구자에게 접수한 강연 CD.

일제강점기의 조선인과 교류하고 조선의 문화적 가치를 인정한 걸로 밝혀진 작가 마쓰다 도키코(1905-2004). 그녀가 일본의 근현대사에 있어서 시집을 발매금지처분 받은 유일한 여성시인이었음이 밝혀졌다.

김정훈 전남과학대 교수는 25일 “2014년 세상을 뜬 도이 다이스케(土井大助) 시인이 ‘마쓰다 도키코를 얘기하는 모임’ 주최의 강연회(2009년 11월)에서 일본 근현대사에서 시집 발매금지처분을 받은 유일한 여성시인이 마쓰다 도키코임이 드러났다”며 “강연은 ‘시인으로서의 마쓰다 도키코’라는 제목으로 진행됐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국내 일본 마쓰다 도키코 작가 연구의 권위자다. 그는 “최근 그 강연 CD를 일본의 연구자에게 받아서 관련 사항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또한 김 교수는 마쓰다 도키코의 주목할 만한 가족에 대한 소개도 덧붙였다.

마쓰다 도키코의 남편은 노동운동가인 오누마 와타루(大沼渉). 그런데 이 오누마 와타루를 마쓰다 도키코에게 소개한 인물은 후루카와 미키마쓰(古河三樹松).

김 교수는 “후루카와 미키마쓰는 바로 대역사건(천황암살 기도 혐의)의 사형수인 후루카와 리키사쿠(古河力作)의 동생”이라는 사실도 강조했다.

일본제국주의의 하수인들은 한일강제



마쓰다 부부와 연을 맺어준 후루카와 미키마쓰(가운데).

/김정훈 교수 제공

병합의 해인 1910년 5월25일 이 후루카와 리키사쿠와 미야시타 다키치(宮下太吉) 등이 폭탄을 제조해 천황을 암살하려 했다는 구실을 들어 그들을 체포했다. 또한 그것을 계기로 사회주의자들을 대대적으로 탄압하는데, 마쓰다 도키코는 천황암살 기도 혐의로 사형을 당한 혁명가의 동생에게 남편을 소개받았다.

김 교수는 “마쓰다 도키코 부부가 어느 부부보다도 진보적이었으며 부부가 동시에 불의에 맞서서 평생을 인권운동가로 투쟁할 수 있었던 배경”이라고 말했다.

일본에서 여류시인으로서 처음으로

발매금지처분을 당한 시집 ‘참을성 강한 자에게’는 1935년 도진샤(同人社) 서점에서 출간됐다. 일본제국주의의 치안유지법 하에 여러 부분이 탄압의 대상이 돼 삭제와 함께 복자로 표기됐다.

“참을성 강한 자에게” 표지에는 밤에 애를 업고 운동을 전개하러 나가는 마쓰다 도키코 자신을 형상화한 그림이 새겨져 있다.

김 교수는 “시집 5권을 남겼지만, 새롭게 드러난 마쓰다 도키코의 시인으로서의 위상과 가족관계는 그녀를 이해하는데 매우 의의가 있는 내용”이라고 말했다.

/정겨울 기자

연말 가볼만한 음악회는?



열정적 에너지 화려함 가득

카메라타전남 오케스트라 27일 전남대 민주마루

카메라타전남 오케스트라(사진)가 송년음악회를 연다.

박인옥 전남대 교수가 이끄는 카메라타전남 오케스트라는 오는 27일 오후 7시30분 전남대 민주마루에서 제6회 정기연주회로 ‘송년음악회’를 마련한다.

올해를 마무리하는 이날 음악회에선 국내·외에서 활발히 활동하는 최고의 협연자들을 만나볼 수 있다.

영국 리즈공물 2위 및 오케스트라 특별상 수상자인 피아니스트 김희재는 ‘베토벤 피아노협주곡 제4번 1악장’을 들려준다. 바이올리니스트 이혜정(전남대 교수)과 비올리스트 임요섭(서울시향 단원)은 모차르트의 ‘바이올린과 비올라를 위한 협주곡 K.364의 1악장’을 선사한다.

이외에도 열정적 에너지와 화려함으로 가득찬 글린카의 ‘무슬란과 루스밀라 서곡’, 차이코프스키의 ‘1812’ 서곡이 연주된다.

또한 한국가곡 최영섭의 ‘그리운 금강산’, 푸치니 ‘투란도트’, 베르디 ‘오텔로’, 리골레토의 오페라 아리아를 소프라노 오미선(성신여대 교수), 테너 윤병길(전남대 교수), 바리톤 공병우(전남대 교수)가 노래한다.

한편, 카메라타 전남은 ‘2019 대구 월드오케스트라시리즈’에 초청돼 연주하는 등 영·호남 지역에서의 정기적인 연주를 열며 영·호남 예술교류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공연은 전석초대이며 카메라타전남 오케스트라를 통해 사전예약이 가능하다.

/정겨울 기자



하당 조재환 화백 미수전

30일까지 광주 대의동 갤러리D

비움 배움 그리고 여백...60년 예술인생 풀어낸다

문인화·서예·화조 등 40여점 전시

원로화가 하당(夏塘) 조재환 화백이 올해 88세를 맞아 ‘미수(米壽)’전을 개최한다.

조재환 화백은 오는 30일까지 광주 동구 대의동 갤러리D에서 전시회를 갖는다. 전시는 조 화백이 2013년 이후 6년 만에 갖는 세 번째 개인전으로, 문인화와 서예, 화조화 등 40여점을 선보인다.

제자들을 지도할 때 내건 채본 작품들도 전시한다.

조 화백은 1958년 남종화의 대가인 의

제 허백련 선생을 사사하고, 자신의 예술 세계를 꽃피우기 시작했다.

의제가 지도하는 연진회미술원 1기 수료생(1978년)인 그는 한국화를 비롯해 문인화, 서예, 화조도 등 구술을 앞둔 지금도 붓을 놓지 않는 열정으로 제자들에게 큰 가르침이 되고 있다.

60년 넘게 예술인생을 걸어가고 있는 조 화백은 1983년 동림미술연구원을 열어 수많은 후학들에게 문인화, 한국화, 서예, 화조, 기명도, 역모도 등 다양한 장르를 전수했다. 1987년부터 지난해까지 제자들의

습작전인 ‘동림미술원 송목회원전’을 19회째 개최했다.

조 화백은 제자들에게 “늘 자신을 비우는 연습을 하라”고 강조한다.

특히 돈을 쫓아가지 않고, 욕심을 털어내는 무욕(無慾)의 마음이 붓을 들게 한다. 그래서인지 그의 작품에는 한적하고, 한가롭고, 정적이며, 고즈넉한 모습들이 많다.

작품 속에 품고 있는 비움과 배려 그리고 여백 그의 예술인생을 담은 듯하다.

조 화백은 “60년 예술인생의 의미도 잊

지 않겠다”고 말했다.

조 화백은 제자들에게 “늘 자신을 비우는 연습을 하라”고 강조한다. 특히 돈을 쫓아가지 않고, 욕심을 털어내는 무욕(無慾)의 마음이 붓을 들게 한다. 그래서인지 그의 작품에는 한적하고, 한가롭고, 정적이며, 고즈넉한 모습들이 많다.

작품 속에 품고 있는 비움과 배려 그리고 여백 그의 예술인생을 담은 듯하다.

조 화백은 “60년 예술인생의 의미도 잊

지 않겠다”고 말했다.



조재환 작 ‘무연’

/작가 제공

지만, 오랜 세월 붓을 놓지 않도록 도와준 지인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는 자리”라며 “제자들이 열심히 공부할 때가 제일 행복하며 힘이 난다”고 말했다.

/정겨울 기자

올해 마지막 ‘국악의 향연’

진도 국립남도국악원 27일 국악연주단 공연

국립남도국악원(원장 정성열)은 27일 오후 7시 국립남도국악원 진오당에서 2019년 마지막을 장식하는 금요국악공감 ‘국악의 향연’을 선보인다.

3월부터 매주 금요일마다 진행된 국립남도국악원의 올해의 금요국악공감은 27일 공연을 끝으로 대단원의 막을 내린다. 금요국악공감은 창작 국악부터 창곡과 어린이극, 전통 국악공연까지 진도군민과 관광객들에게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했다.

공연은 기악합주 ‘남도거거리’(사진), 가야금병창 ‘진도방아타령’, 전통춤 ‘규장농월’, 기악독주 ‘서용석류 대금산조’, 민요 ‘금강산타령, 동백타령’, 사물놀이 ‘삼도설장구’ 등 총 6개 프로그램 이뤄진다.

국립남도국악원은 원활한 공연 진행을 위해 공연장 지정좌석제를 운영한다. 무료로 관람 할 수 있으며, 공연 당일 오후 6시20분 진도읍사무소, 6시 35분 십일시 사거리에서 무료 셔틀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공연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국립남도국악원 누리집 참고.

/정겨울 기자

60플라워 Flower

축하화환 3단

근조화환 3단

전국전지역6만배송 (기타낙후지역 배송비 추가요금발생)

Tel. 010-9984-0151 농협 박배성 302-0316-649511

http://www.kukje9.co.kr

“맛과 멋을 새롭게”

출장뷔페 전문외식산업

자매회사:제사나라 062)527-0044/011-602-2278

- 야외 결혼식
- 칠순잔치
- 체육대회
- 야유회

국제외식산업(주) 문의.062)262-2278/011-602-2278